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하나텔콤 '아이빔 블랙박스'

# 地下서도 밝게 찍히는 후블랙박스 ... 5만대 팔려

어두운 밤 교통사고가 일어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영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에 누군가 충격을 가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주차장이 어두우면 영상으로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2012년 블랙박스 업체 하나텔콤의 신주연 대표와 남편 최성식 이사는 이 같은 문제점에 주목했다. 어둠에 강한 블랙박스를 개발하는 것, 차별화를 위한 지름길이었다.

1년 후 이들은 '아이빔 블랙박스'를 선보였다. 아이빔은 어둠을 스스로 인식, 충격이 가해지거나 사람의 움직임 등이 포착되면 빛을 밝게 비추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이른다. 신 대표는 "블랙박스에 아이빔 기능을 적용해 어두워도 영상이 뚜렷하게 나오게 했다"며 "기존 블랙박스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누적 판매량이 5만대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어둠에 강하고 전력 소모 적어" 신 대표는 남편 최 이사와 함께 2008년 하나텔콤을 설립했다. 신

어둠 속에서 충격 있으면 LED 조명 켜져 영상 뚜렷 전력도 he제품 절반 수준

작년 매출 50% 늘어 15억 미안마·중국서도 '리브콜'

대표는 필립스코리아 품질경영팀에서, 최 이사는 인켈에서 생산 관리직으로 일했다. 그들은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첫 시작은 인터넷 무선모뎀 사업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쉽게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섰다. 블랙박스 사업이 눈에 들어왔다. 최 이사는 "과거엔 블랙박스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이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필수 품목이 됐다"며 "시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11년부터 블랙박스 제조로 업종을 전환했



신주연 하나텔콤 대표와 남편 최성식 이사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은 아이빔 블랙박스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신 대표는 "기존엔 영상을 밝게 하려면 블랙박스와 별도로 LED 조명을 달아야 해 비용과 전력 낭비의 문제가 있었다"며 "아이빔을 블랙박스에 장착해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어둠에 강한 뿐 아니라 전력 소모가 적다. 회로를 이용해 열을 분산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다른 블랙박스의 절반 수준

에 그친다. 가격은 23만~26만원이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0% 늘어난 15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20%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미안마, 중국 등에도 진출 해의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미안마 바이어로부터 먼

저 수출 제안이 왔다. 최 이사는 "미안마는 1년 내내 더운데 이 때문에 블랙박스가 한두 달도 못 견디고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이빔 블랙박스가 열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바이어로부터 수출 제안을 받아 1500여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엔 중국 업체와 총판 계약을 맺었다. 최 이사는 "1500여대를 판매했고 추가로 2500여대 주문이 들어왔다"며 "미안마, 중국뿐 아니라 미국, 필리핀 등 6개국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텔콤은 자체 브랜드 판매를 고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기업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스도쿠-골프거리측정기(070-4228-1711) △하나텔콤-아이빔블랙박스(031)427-0611 △다나로-구-뷰메이트(031)704-8951 △유티엘코리아-증강현실기술을 이용한 3D 팝업북(02)2058-2829

## 롯데 '블랙프라이데이' 일산 출장세일 가보니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내 롯데백화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장이 쇼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 버버리백·삼성 김치냉장고 ... "최대 80%, 아울렛보다 싸요"

"30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백화점 세일 때는 물론, 아울렛보다도 싼 것 같아요."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롯데백화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장. 개장 전부터 줄을 서 기다렸다는 강혜원 씨(32)는 "세킷 한 벌 가격으로 재킷에다 스카프, 운동화까지 살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개장 전부터 4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길게 늘어섰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들은 미리 점찍어 둔 특가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간 만에 준비한 수량 1000개 중 600개가 팔렸고, '삼진어묵'은 1700세트 중 800세트가 판매됐다. 롯데백화점이 이날부터 내놓간 여는 이번 재고떨이 세일은 우선 규모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장 면적이 1만3000㎡로 롯데아울렛 서울역점(1만1000㎡)보다 넓다. 할인폭도 최대 80%로 크다. 500억 원어치 재고를 나올 만에 팔기 위해 할인폭을 확대했다는 것이 롯데 측 설명이다. 입생로망, 버버리, 필버리 등 브랜드수입 명품 핸드백부터 삼성 김치냉장고, LG TV, 테팔 다리미, 에이스침대 매트리스까지 360개 브랜드가 참여했다.

## 개장 전부터 400명 줄서 온라인 최저가보다 값 내려

가장 인기를 끈 매장은 토이저러스 행사장. 1000개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터닝메카드 제품은 입장 인원 제한에도 세 시간 만에 700개 이상이 판매됐다. 특가로 내놓은 푸마 운동화(3만7600원)는 한 시간 만에 50켤레가 모두 판매됐으며, 레노마 스카프(2000원)는 30분 만에 준비한 100개가 다 팔렸다. 지역맞집 행사장을 찾은 손님도 많았다. '만석당강정'은 세

롯데백화점은 판매 수수료를 최대 6%포인트 낮춰 협력업체 참여를 늘렸다. 온라인쇼핑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하는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 인터넷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 일부 품목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다는 것이 확인되던 행사 중간이라도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최저가를 유지한다. 전일호 롯데백화점 본점 영업총괄팀장은 "첫날 손님이 많이 찾아 7일 행사 때보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나흘만 판매도 7일 행사 때보다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중소중앙회, 신입사원 채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인크루트 채용사이트(kbiz.incruit.com)를 통해 신입 직원 지원서를 받는다. 모집 직위는 일반 사무직으로 연령 및 학력 제한이 없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명감과 전략적 문제해결, 긍정적인 사고, 협력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달 중순 발표한다.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1,2차 면접을 거쳐 20여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별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이지수기자 onething@hankyung.com



롯데월드몰 개장 1주년 롯데물산이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개장 1주년을 맞아 7층 시네파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롯데월드몰은 지난 1년간 2820만여명이 방문하고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네 번째)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롯데물산 제공

## SSG닷컴, 직구 무료배송관

신세계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은 오는 19일 미국과 이탈리아 현지에서 매장 및 물류창고를 갖춘 협력사와 손잡고 무료 배송이 가능한 해외 직구구매(직구) 전문관을 연다. 기존 해외 직구와 달리 배송 및 구매대행 절차를 생략해 배송 기간이 종전 7-10일에서 4-7일로 단축된다. 보통 4만~5만원에 달하는 반품 배송비도 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 CJ, 차세대 감미료 본격 수출

(타가토스)

CJ제일제당이 설탕보다 열량이 60% 낮은 감미료 '타가토스'를 유럽에 본격 수출한다. CJ제일제당은 벨기에의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템허트를 통해 유럽지역에 타가토스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첫 수출 물량은 556t, 금액 기준으로 41억원어치다.

## 유럽에 556t, 41억원어치 설탕보다 열량 60% 낮아

도해온 템허트가 기술력을 인정해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가토스는 우유, 치즈, 사과 등에 소량 존재하는 천연 감미료다. 설탕 대비 열량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단맛은 92% 수준이다. CJ제일제당은 2004년부터 타가토스를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

한 효소 개발에 착수했다. 시행착오 끝에 7년 후 효소를 활용한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장 상무는 "현재 타가토스를 상업화해 정식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중 유럽에 이어 미국 수출길도 열 예정이다. 타가토스를 비롯한 기능성 차세대 감미료 시장에서 2020년까지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진규기자 josep@hankyung.com

## 모십니다

## 황해포럼, 한양대 에리카캠퍼서 개최



한국경제신문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함께 '한정 황해포럼'을 오는 20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연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생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기업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다. '한정 황해포럼'은 반월 시화 화성 팽택 아산지역 중경·중소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습니다. 지역 기업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일시: 10월20일(화) 오전 7시30분~8시30분
- 장소: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게스트하우스
- 참가비: 1만원(현장 접수)
- 문의: 황해포럼 사무국 (031)400-5618

## 농수산물 도매물가

구분	(2015년 10월15일 기준, 단위:원)			
	오늘	전주 대비	전년 대비	
쌀	일반계(20kg)	38,200	-400	-2,520
콩	백대(국산)(35kg)	137,000	0	-400
고구마	밤(10kg)	22,200	-1,200	1,600
감자	수미(20kg)	24,800	0	3,920
배추	고랭지(1kg)	400	-90	-86
양배추	양배추(10kg)	5,000	-300	596
시금치	시금치(4kg)	9,200	1,000	-1,320
상추	적(4kg)	20,000	2,400	2,200
수박	수박(1개)	9,000	-1,200	1,040
오이	다다가계통(10kg)	17,000	-2,667	-1,889
호박	애호박(8kg)	14,600	1,000	1,360
토마토	토마토(10kg)	21,800	-400	-2,400
당근	무세척(20kg)	30,800	-3,600	-12,800
꽃고추	꽃고추(10kg)	20,800	4,000	-13,920
마늘	난지(10kg)	53,000	4,000	18,880
양파	양파(20kg)	28,200	-200	17,680
파	대파(1kg)	1,750	-10	646
상감	국산(20kg)	94,600	-11,600	-14,200
미나리	미나리(20kg)	64,600	-5,800	-5,000
깻잎	깻잎(2kg)	16,000	1,400	-4,280
사과	홍로(10kg)	29,400	-2,000	-
배	신고(15kg)	39,200	-2,200	11,120
바나나	수입(13kg)	28,200	-400	-
참다래	수입(10kg)	45,000	0	-1,800
오렌지	발전시아(18kg)	49,200	0	8,320
고등어	생선(10kg)	35,000	-2,400	-6,800
명태	냉동(20kg)	40,400	0	1,200
물오징어	생선(1kg)	4,280	40	-192
건멸치	건멸치(1.5kg)	14,400	0	-700
복어	황태(10마리)	38,600	0	-1,400

\*상품(노품) 기준 전국 평균 도매가. 수산물은 중품(中品)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배 가격, 작년보다 40% 경중

### 15kg 한상자에 3만9200원

배, 단감, 감귤 등 일부 과일 가격이 전년에 비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배 15kg 한 상자 가격은 3만92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이맘때 가격(2만8080원) 대비 39.6% 높은 수준이다.

배 가격이 오른 것은 작년보다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배 출하량을 약 2만t으로 전망했다. 작년 동월 대비 12%가량 적은 규모다. 연구원 측은 이달 배 평균 가격이 15kg 기준 3만3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같은 달과 비

교하면 최대 7000원 높은 수치다. 감귤의 지난달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1% 높은 kg당 4450원이었다. 출하량은 6%가량 줄었지만 품질이 좋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출하량도 전년보다 7%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kg당 가격은 작년 10월 2530원보다 높은 3000~3200원 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성수기 때 전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단감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년 대비 출하량이 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감 10kg 한 상자의 이달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10월(2만1000원)보다 소폭 오른 2만2000~2만4000원대가 될 것으로 연구원 측은 전망했다. 김진규기자 josep@hankyung.com

## 산업자재 도매물가

종류	품목	규격	(2015년 10월13일 기준, 단위:원)			
			단위	가격	전주 대비	전년 대비
철강계	보강철근	D10mm	t	635,000	15,000	-
	고강력철근	D10mm(하이텐)	t	640,000	15,000	-
	구조용강판	100×100×6×8mm(압연 중형)	t	750,000	-110,000	-
	열연철판	SS41.1.4≤t≤1.6mm(914×1,829)	kg	1,200	-	-
	냉연철판	CR(SCP1)1.0mm≤t(1.75m)	kg	1,320	-	-
특수강재	구조용탄소강판	76.3×3.2mm	m	7,340	-327	-
	스테인리스강판(STS3042B)	STS304 2.0mm	t	3,600,000	100,000	-
비철제품	동판(1종)	0.5mm×400mm×1200mm(KSD5201)	kg	8,980	180	-1,110
	전기동	99.99% 이상	t	7,220,000	120,000	-736,000
	알루미늄괴	V-INGOT(중국제)	t	2,320,000	70,000	-550,000
	전기여연	99.995%(SHG)	t	2,450,000	-80,000	-520,000
	전기여연	99.99% 이상	t	2,380,000	-20,000	-320,000
골재·목재	알루미늄판	0.4mm 400×1,200mm(A1235)	kg	3,810	70	-800
	목재	교묘목, 시내도착도	m	23,000	-	-
	시멘트(보통)	40kg(포장용)	포	4,500	-	-
	레미콘	25mm 18MPa×8cm	m	66,100	-	-
토목자재	스테인리스스틸	AP-3점압도 80~100mm	kg	430	-	-330
	콘크리트벽돌	190×90×57mm KS	매	70	-	-
건축자재	스티로폼	1호 10×900×1,800mm(비중0.030)	매	1,940	-	-
	공업배관용스티렌리	STS304 TP-A 호칭 15A 두께2.0t-KSD3576-	m	4,940	-	-
배관설비재	동파이프	L-TYPE 15A 15.88mm 0.426kg/m	m	3,530	-	-460
	나프터	공압용	t	341,400	-5,940	-153,120
	에틸렌	99.8% 이상	t	1,125,000	-	-273,000
	프로필렌	99.6%PG중합용	t	922,000	-	-348,000
석유화학제품	벤젠	99.9% 용제용	t	787,000	-57,000	-313,000
	염산	35% 농도용	t	160,000	30,000	20,000
가스·화학약품	가스실리카	98%	kg	880	-	-
	용지	아트지 100g/㎡(4×6반(양면))	연(매)	61,720	1,210	2,970
귀금속	은	99.9% 24K	3.75g	162,500	-300	3,800
	은	99%	3.75g	2,250	40	100

\*부가가치세 별도(\*은 포함) 자료: 한국물가협회

## 전기동 t당 12만원 올라

철강재를 비롯한 토목자재, 건축자재, 소방설비, 전기통신자재 등 대부분 품목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동(순도 99.99% 이상)은 국제시세 상승의 영향으로 t당 전주 대비 12만원 오른 722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벤젠 가격은 t당 전주 대비 5만7000원 내린 78만7000원을 기록하는 등 기초석유화학 대부분 제품은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가 하락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귀금속 가격은 국제시세 강세·약세 요인이 혼조를 보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 가격은 3.75g당 전주 대비 300원 내린 16만2500원을 기록했다. 은은 3.75g당 전주 대비 40원 상승한 2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만복 한국물가협회 연구원